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 및 미래 기대와 양육분담

Fathers' Values and Future Expectations Regarding Children and Their self-evaluated Shared Parenting

김수연¹ 김다혜² 김연하³

Su Yeon Kim¹ Da Hye Kim² Yeon Ha Kim³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fathers' values and future expectations on children and their self-evaluated equivalence to their spouses in child rearing practices.

Methods: The data were from 997 fathers with young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2013). The associ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analysis using SPSS 20 Program.

Results: Fathers with emotional values on children or future expectations focused on their children's happiness and altruism are more willing to share child rearing practices with their partners. In contrast, fathers with expectation focused on future financial success of their children are less willing to share parenting with their partners.

Conclusion/Implications: Fathers' values and future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are meaningful predictors of shared parenting in married couples with young children. However, the directions of associations differ based on which types of values and future exportations fathers have regarding their children.

key words father, value of children, future expectation of children, shared parenting

¹ 제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²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³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e-mail : yeonhakim@khu.ac.kr)

I.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는 가정 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였고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졌다. 오늘날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기보다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아버지로 그 방향이 변화하였다(Cappuzzo, Sheppard, & Uba, 2010). 자녀양육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상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Lamb, Pleck 그리고 Levine(1985)은 유아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였으며, 장

영애와 이영자(2008)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은 적지만,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녀양육에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새롭게 평가하면서 자녀 발달에 대해 어머니와 분리하여 아버지의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권기남, 2014), 점차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해 연구하는 흐름이 활발해졌다.

많은 연구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아버지가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돕는 형태로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로 살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보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와 동등한 자녀양육의 주체로서 자녀양육에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존재(신경남, 2016)로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 아버지의 자녀양육은 '참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우자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양육분담의 개념으로 다뤄야 한다.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크게 감소시키고(Gavin & Wysoc-ki, 2006) 자녀의 사회적인 능력(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성역할과 역할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최경순, 정현희, 1995), 정서조절(임지윤, 문동규, 김영희, 2009), 또래수용도(황영미, 문혁준, 2006) 등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자녀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아버지 삶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는 역할만족도와 효능감이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보다 높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와 양육을 분담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진다(Pleck, 1977). 이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한 축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공헌감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육의 개념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해야 한다는 양육분담의 개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정 내의 양육은 상당부분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오경숙, 2006). 2014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돌보는 등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에 있어서 여전히 아내가 남편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석현호, 2014).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분담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독려할 방안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양육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부모역할이나 자녀양육 행동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의 틀과 같은 인지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Goodnow, 1988; Miller, 1988).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를, 양육분담을 설명할 수 있는 양육관련 인지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그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자녀가치란 부모됨의 태도와 같은 의미로 자녀를 출산·양육 등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김민정, 2011; 김애란, 유경숙, 유혜자, 이병재, 1999). 자녀가치(the Value of Child)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부터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보다 경제학자들에 의

해 먼저 연구되었다. 경제학자들은 부모의 투자적인(investment) 측면에서 경제적 자녀가치를 설명한 것인데,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자녀의 경제성(배경민, 2007)을 의미한다. 이후 자녀가치가 저출산(김성희, 이규식, 조남훈, 홍성열, 1977; 김혜순, 1982), 자녀양육태도(하용출, 2001), 부모역할의 변화(김영주, 1998; 손승영, 1995) 등과 함께 연구되면서 자녀가치에 대한 개념이 크게 정서적·도구적·사회적 가치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 패널연구에 기초하여 현대사회의 자녀가치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에게 정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일이라고 여기는 자녀관이고, 도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노후에 물질적인 조력을 기대하는 등의 자녀관을 의미한다(임현주, 최항준, 이대균, 2012).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또는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양육분담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갖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주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을 의미한다(조유진, 201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은 부모가 어떠한 양육행동이나 부모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요인이 된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정한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자녀양육에 적용하여 부모역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김민정, 2011, 2012; 남재임, 2005; 박은희, 2003, 전경숙, 1996). 임종석(2000)은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 행동 등은 자녀의 인성,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문연심(2004)은 자녀가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등 사회적 성공을 바라면 지위 지향적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자녀가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바라면 인간 지향적 부모-자녀관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는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김민정,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에 대한 기대와 자녀에게 부여하는 가치는 아버지가 양육에 임하는 태도나 양육분담정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기대×가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목표 관련 행동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고, 가치가 있다고 지각할 때 몰입도가 높다(Shah & Higgins, 1997). 따라서 자녀에 대한 가치나 기대가 높을수록 양육분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나 미래 기대는 단순히 높고 낮음의 수치로만 측정되기보다는 도구적 대 정서적, 또는 지위지향적 대 인간지향적 등 차별화된 인지 정서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가치 및 미래기대의 차원에 따라 양육분담과의 관련성도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가치 및 미래기대가 양육분담과 어떠한 양상으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동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 증진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가족 또는 아버지가 가진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연구한 여러 연구들이 아버지의 학력과 연령, 직업, 가정의 월수입(김근혜, 김혜순, 2013; 이지희, 문혁준, 2005; 황순영 등, 2005),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어머니 취업여부(김정, 이지현, 2005; 김희주, 1997; 손영빈, 윤기영, 2001; Gaunt, 2005)와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아버지의 연령과 학력, 자녀의 성별, 배우자의 취업·학업여부, 월 가구 소득을 포함하여 아버지의 자녀가치 및 자녀미래기대와 양육분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와 양육분담과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와 양육분담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미래기대가 양육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6차년도(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의 성장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대한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다. 본 연구의 대상은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150명 패널 아동의 아버지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응답한 아버지 997명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조사방법은 아버지대상 질문지는 우편으로 실시하였고, 면접조사용 질문지는 조사원이 패널 참여 가구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에 관한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505명(50.7%), 여자가 492명(49.3%)로 자녀의 성비는 비슷하였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37세-42세가 555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1세-36세가 284명(28.5%), 43세-48세가 127명(12.7%) 순이었다. 학력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며 대학교 졸업 438명(43.9%), 전문대 졸업 191명(19.2%), 대학원 졸업 101명(10.1%)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배우자가 일 또는 학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수입은 201만원~500만원이 제일 많았으며, 501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도 187명(18.8%)정도 차지했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도 9명(0.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의 자녀가치

이삼식 등 (2005)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척도 중 자녀가치와 관련된 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

〈표 1〉 연구대상의 가족 특성 (N = 997)

	특성	n	%
자녀			
성별	남자	505	50.7
	여자	492	49.3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15	1.5
	31세-36세	284	28.5
	37세-42세	555	55.7
	43세-48세	127	12.7
	49세 이상	16	1.6
학력	중학교 졸	6	.6
	고등학교 졸	261	26.2
	전문대 졸	191	19.2
	대학교 졸	438	43.9
	대학원 졸	101	10.1
배우자취업·학업여부	취업·학업(휴학·휴직 포함)	381	38.2
	미취업·학업	616	61.8
가정			
월가구소득(범위)	100만원 이하	9	.9
	101만원 ~ 200만원	73	7.3
	201만원 ~ 300만원	248	24.9
	301만원 ~ 400만원	262	26.3
	401만원 ~ 500만원	218	21.9
	501만원 이상	187	18.8

을 준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묻는 4개의 문항과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를 포함하는 도구적 가치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서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높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아버지의 자녀미래기대

본 항목은 일본의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2007)에서 이루어진 자녀교육 특성 국제 비교 연구의 척도에서 사용한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돈을 잘 번다(High earnings),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Fame or celebrity status),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High status),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Willingness to help others),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A happy home),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Put more emphasis on hobbies and leisure than work)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는다(1점)’부터 ‘매우 원한다(4점)’의 범위에서 평정하는 Likert 4점 척도이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과 관련된 내용의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항목 별로 응답자가 원하는 정도를 해석하게 되므로, 총점은 산출하지 않는다.

3) 아버지의 양육분담

한국아동패널에서 NICHD(1999)의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SECCYD)를 번역하여 사용한 양육분담(My time spent as a parent: Child care activities)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이를 목욕 시킨다’,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등 양육 관여 정도에 대해 묻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 5점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배우자가 함(1점)’, ‘대부분 배우자가 함(2점)’, ‘똑같이 함(3점)’, ‘대부분 내가 함(4점)’, ‘내가 함(5점)’, ‘해당 없음’의 범위 안에서 응답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양육 활동에 참여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양육 활동에 참여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가 양육분담과 어떠한 관계인지,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인구의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 양육분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미래기대가 양육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버지의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와 양육분담의 일반적인 경향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미래기대, 양육분담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가 평소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 중간점인 2.5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정서적 가치($M=4.47$, $SD=.56$)에 치중하는 경향이 도구적 가치($M=4.47$, $SD=.56$)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들이 자녀를 대를 잇는 수단이나 노후 대비 등의 도구적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자녀로 인한 기쁨, 정서적 만족감 등의 정서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의 미래기대를 살펴보면, 행복한 가정($M=3.81$, $SD=.41$), 이타심($M=3.30$, $SD=.61$), 금전

<표 2>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자녀가치	정서적 가치	4.47	.56
	도구적 가치	3.27	.80
자녀의 미래기대	금전	3.13	.62
	명성	2.88	.73
	사회적 지위	2.85	.76
	이타심	3.30	.61
	행복한 가정	3.81	.41
	여가	2.93	.72
	양육분담	2.12	.55

($M = 3.13$, $SD = .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일 낮은 평균을 보인 것은 사회적 지위($M = 2.85$, $SD = .76$)이다. 즉, 아버지들이 자녀가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대한 경향을 살펴본 결과, 평균이 2.12($SD = .55$)로 나타나 똑같이 함(3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따라서 아버지들 스스로가 동등하게 양육을 분담하기 보다는 어머니가 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2. 아버지의 자녀가치, 자녀미래기대, 양육분담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미래기대, 양육분담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와 같이, 세 변인 간에 $-.08 \sim .83$ 까지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N = 997$)

변인	1	2	3	4	5	6	7	8	9
1. 양육분담	1.00								
2. 정서적 자녀가치	.13**	1.00							
3. 도구적 자녀가치	-.03	.34**	1.00						
4. 미래기대: 금전	-.08**	.06	.15**	1.00					
5. 미래기대: 명성	-.07*	.05	.21**	.53**	1.00				
6. 미래기대: 사회적 지위	-.07*	.03	.21**	.53**	.83**	1.00			
7. 미래기대: 이타심	.05	.03**	.19**	.22**	.34**	.34**	1.00		
8. 미래기대: 행복한 가정	.07*	.37**	.03	.20**	.13**	.09**	.30**	1.00	
9. 미래기대: 여가	-.01	.10**	.06	.12**	.17**	.17**	.27**	.11**	1.00

* $p < .05$, ** $p < .01$.

버지의 양육분담은 정서적 자녀가치($r = .13, p < .01$), 자녀의 미래기대 중 행복한 가정($r = .07, p < .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미래기대 변인 중 금전($r = -.08, p < .01$), 명성($r = -.07, p < .05$), 사회적 지위($r = -.07, p < .05$)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도구적 자녀가치, 이타심과 여가에 대한 미래기대는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아버지가 정서적 자녀가치를 높게 들수록, 자녀가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길 바랄수록 더 적극적으로 양육분담을 하고, 자녀가 미래에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명성을 얻으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삶에 대한 기대를 할수록 양육분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물질적 이익과 비용을 의미하는 가치, 미래에 남을 배려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삶에 대한 기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34, p < .01$). 정서적 가치는 이타심($r = .03, p < .01$), 행복한 가정($r = .37, p < .01$), 여가($r = .10, p < .01$)와 관련된 미래기대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도구적 가치는 금전($r = .15, p < .01$), 명성($r = .21, p < .01$), 사회적 지위($r = .21, p < .01$), 그리고 이타심($r = .19, p < .01$)과 관련된 미래기대와 정적 관련이 있었다.

3.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가 양육분담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미래기대가 양육분담에 미치는 고유의 설명력을 규명하기 위해

〈표 4〉 양육분담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N = 997)

구분	양육분담			
	블럭1	블럭 2	블럭 3	
	β	β	β	
가족특성	연령	-.05	-.05	-.06*
	학력	.07*	.056	.05
	월 가구소득	.07*	.067*	.09**
	배우자의 취업·학업여부	-.11***	-.11***	-.11***
	자녀 성별	-.05	-.06	-.06
자녀가치	정서적		.14***	.11**
	도구적		-.08*	-.06
자녀 미래기대	금전			-.09*
	명성			-.06
	사회적 지위			-.01
	이타심			.08*
	행복한 가정			.08*
여가			-.03	
상수	2.45	2.02	2.37	
F	6.47***	7.50***	5.19***	
R ²	.03	.05	.06	

* $p < .05$, ** $p < .01$, *** $p < .001$.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먼저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미래기대의 순수한 예측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 특성변인(연령, 학력, 월가구소득, 배우자의 취업·학업여부, 자녀 성별)을 블럭 1로 통제하고, 자녀가치(블럭 2), 자녀미래기대(블럭 3)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경우는 없었고, 공차한계는 모두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럭 1에 가족 특성변인을 투입한 후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분담의 변량 중 3.2%($R^2 = 0.0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배우자의 취업·학업여부($t = -3.501, p < .001$)와 학력($t = 2.137, p < .05$), 가구 월소득($t = 2.177, p < .05$)이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에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배우자가 취업중이거나 학업 중일 경우 오히려 아버지가 양육에 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럭 2에서 아버지의 자녀가치를 투입한 후 그 결과를 살펴보면, 새롭게 투입한 정서적 가치($t = 4.343, p < .001$), 도구적 가치($t = -2.301, p < .05$) 모두 양육분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그 방향성은 상이하였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서적 가치를 높게 둘수록, 도구적 가치를 낮게 둘수록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

블럭 3에서 자녀 미래기대를 추가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분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자녀 미래기대는 금전($t = -2.367, p < .05$), 이타심($t = 2.335, p < .05$)과 행복한 가정($t = 2.358, p < .05$)이었으나 그 방향성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낮아졌으나 자녀가 미래에 이타심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랄수록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분담을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현 시대상(김민정, 2013)을 반영하여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와 미래기대, 그리고 양육분담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자료 중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997명의 자녀가치, 자녀 미래기대 및 양육분담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오늘날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 자체에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며, 자녀가 주는 정서적 위안과 부부관계 결속 증진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한국사회에서의 자녀가치는 도구적이고 경제적이며 가족인 것이었다면 오늘날 자녀가치는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어 일종의 기호품화(taste)되고 있다는 이삼식 등(2005)의 주장 또는 전통사회의 집단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자녀가치가 점점 개인의 행복추구, 정서적 안정감, 결혼생활의 행복 등의 정서적인 가치의 지향으로 변

화한다는 배경민(2007)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유사하게, 아버지들은 자녀의 ‘행복한 가정’과 ‘이타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미래기대를 하였다. 가장 평균이 낮은 자녀의 미래기대는 ‘사회적 지위’였다. 즉, 앞서 자녀가치와 유사하게 행복 및 정서 지향적인 측면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미래 기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배우자와의 양육분담 평균은 2.12로 나타나 ‘똑같이 함’(3점)에 못 미쳤다. 최근 양육 및 가정생활에 아버지의 참여와 관심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현실적으로는 배우자와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자녀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참여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두 배 더 부담한다는 최근 보고(석현호, 2014)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구조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급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아버지들의 양육분담 비율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아버지들의 양육분담을 예측하는 변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분담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서적 자녀가치를 높게 둘수록 양육분담에 적극적이었다. 아버지의 미래기대와 양육분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길 기대할수록 양육분담에 적극적이었으나 자녀가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길 바랄수록 양육분담에 소극적이었다. 즉, 정서적 가치나 행복 등과 관련해 자녀의 존재에 큰 의의를 두는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양육을 분담하나, 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에 큰 의의를 두는 아버지는 양육분담에 소극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상관관계의 결과 및 그 방향성은 아버지가 가지는 자녀가치와 기대의 높고 낮음 보다는 어떤 내용의 가치와 기대를 가지는가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가 양육분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서적 자녀가치와 도구적 자녀가치가 양육분담을 예측하는 방향성은 달랐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양육분담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에 대해 도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양육분담을 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해 ‘충실·삶의 보람’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둘수록 관심과 애정이 높은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강란혜(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의 아버지는 자식은 가계의 계승을 위한 존재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강란혜(2000)의 또 다른 연구결과와, 도구적 가치가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모역할의 부담을 줄여 후속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송영주 등(2014)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여섯 종류의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 중, 금전, 이타심 및 행복한 가정이 양육분담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앞서 자녀가치와 마찬가지로 미래기대의 내용에 따라 양육분담을 예측하는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들은 자녀가 돈을 잘 벌었으면 하는 금전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양육분담에 소극적이었으나,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는 이타심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양육분담에 적극적이었다. 이 또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감이 높고 낮음보다는 어떤 내용의 미래기대감을 가지느냐가 양육분담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자녀에 대한 도구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나 기대보다는 정서적 가치나 행복-관계 추구형 기대를 중요시하는 아버지들의 인지적 경향이 적극적 양육분담으로 이어지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인지적 변인에 대한 연구(송영주 등, 2014; 이경선, 2011)는 활발하였으나 주로 어머니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와 미래기대의 영향력을 양육분담과 관련하여 탐색하였다는 데 차별화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미래기대가 배우자와의 양육분담 비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밝혔다. 나아가서 단순히 기대나 가치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Shah & Higgins, 1997)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의 가치와 기대에 중요성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양육참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규명하였다.

다만,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정서적인 가치부여와 행복-관계 추구형 미래기대가 어떠한 경로와 메커니즘으로 양육참여에 긍정적 동기로 작용하는 가는 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 가치체계는 다른 신념체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오랫동안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부가적으로, 아버지들이 스스로 평가한 양육분담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 특성변인과 양육분담과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우선 월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아버지들의 양육분담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족이 가진 금전적 자원이 충분할수록 아버지들이 양육분담에 적극적일 수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정책적으로 다양한 금전적 지원과 혜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들이 취업 중 이거나 학업 중일수록 오히려 남편의 양육분담의 비율이 낮았다. 이는 부부 이외의 제3의 양육자가 양육을 담당하여 아버지들이 양육분담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부부 모두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보육시설의 확충 등으로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 책임이 사회로 많이 이관되었으나, 주 양육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가치는 대체 불가하다. 어머니가 취업하거나 학업 중일 경우 아버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자료의 특성상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로 입력하고 가중치 처리작업이 완료된 후 일반에게 공개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가 양육분담의 동기를 설명하는 모든 변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지식, 신념, 사회적 지지 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인터뷰나 관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아버지의 양육분담의 동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관혜 (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강관혜 (2000).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의 비교: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2), 119-133.
- 권기남 (2014). 아버지의 e-learning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유아의 행복감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2), 5-24.
- 김근혜, 김혜순 (2013).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4), 111-129.
- 김민정 (2011).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양육신념, 자녀기대감과 부모역할지능 간의 관계. **한국복지학회**, 16(3), 155-170.
- 김민정 (2012). 아버지 역할지능에 대한 양육신념 및 자녀기대감의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149-166.
- 김민정 (2013). 양육신념과 자녀기대감 및 부모역할지능에 대한 부-모 간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8(3), 311-332.
- 김성희, 이규식, 조남훈, 홍성열 (1977). 출산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분석(연구보고 1977-12).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 김영주 (1998). 한국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란, 유경숙, 유혜자, 이병래 (1999). **부모교육**. 파주: 정민사.
- 김정, 이지현 (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혜순 (1982). 한국부인의 이상 자녀수 감소변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 (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재임 (2005). 어머니의 자아실현성과 자녀 기대감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연심 (2004). 부모자녀 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준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박은희 (2003).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경민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빈, 윤기영 (200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자녀가치, 양육지식, 자녀미래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5(5), 15-35.
- 손승영 (1995).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 신경남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개인특성이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 (2006).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부모인식 및 자녀양육분담과 양육스트레스.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 (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선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 이지희, 문혁준 (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75-95.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등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종석 (2000). 부모의 학업압력과 아동의 성취불안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윤, 문동규, 김영희 (2009). 아버지의 직장생활 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및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93-118.
- 임현주, 최항준, 이대균 (2012).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임신, 출산 정서와 부모됨의 태도, 양육스트레스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한국유아교육학회지**, 32(3), 225-244.
- 장영애, 이영자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전경숙 (1996). 부모역할행동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들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5(2), 1-16.
- 조유진 (2013). 어머니의 자녀미래기대,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정현희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황영미, 문혁준 (2006). 포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4(2), 83-91.
- 석현호 (2014). **한국의 사회동향**. 대전: 통계개발원.
- 하용출 편 (2001). **한국가족상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Cappuzzo, R. M., Sheppard, B. S., & Uba, G. (2010). Boot camp for new dads: The importance of

- infant-father attachment. *Young Children*, 65(3), 24-28.
- Gaunt, R. (2005). The role of value priorities in paternal and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45-655.
- Gavin, L., & Wysocki, T. (2006). Associations of paternal involvement in disease management with maternal and family outcomes in families with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1(5), 481-489.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2), 286-320.
- Lamb, M. E., Pleck, J. H., & Levine, J. A. (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S.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229-266), NY: Plenum.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 NICHD Early Child Care Network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 Retrieved September 23, 2016 from <https://www.nichd.nih.gov/research/supported/seccyd/Pages/overview.aspx>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Pleck, J. (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4), 417-427.
- Shah, J., & Higgins, E. T. (1997). Expectancy x value effects: Regulatory focus as determinant of magnitude and dir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447-458.

논문투고: 16.12.15
수정원고접수: 17.01.23
최종게재결정: 17.02.09